

지역 소식통

'J&M 재단' 김제시 드림스타트 1년간 장학금 후원

김제시 드림스타트(과장 소연숙)는 사회복지법인 J&M재단(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의 씨앗 심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 아동 13명에게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약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금번 장학금은 김제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동으로 13명을 선정, 세대별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15만원 ~ 25만원씩(월 245만원) 차등 지급된다.

J&M재단(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사회복지이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분야에서 후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완주군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올해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0대의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발생을 동시에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엔진교체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본격지가 완주군에 2년 이상 등록된 Tier 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등의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된 것)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엔진교체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사업참여 엔진교체 제작사에 지원 대상지종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제작사에 제출하면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기종에 따라 13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교체 완료 후 제작사에 지급하게 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31일부터이며,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완주군, 올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도시·국비 4천만원 확보 전국 군단위 유일한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구축

완주군이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인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21개 지자체 공모했

으며, 이 중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완주군은 향후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완주순가락공동육아, 품앗이 놀이터 2개 돌봄공동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와 컨설팅, 돌봄공동체 모임 지원 등 돌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완주순가락 공동육아는 고산 지역 귀농귀촌 아동을 대상으로, 품앗이 놀이터는 봉동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공동체 돌봄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지역자활센터, "세가지 맛 파이 맛보세요"

해피트리브레드 사업단, 기존과 차별화 된 삼색파이 개발·출시

완주지역자활센터의 초코파이를 3가지 맛으로 만났다.

완주군은 완주지역자활센터 해피트리브레드사업단에서 딸기맛, 망고맛, 코코아맛 삼색파이를 개발해 선보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 특산품인 삼례 딸기와 망고를 넣어 색깔과 맛이 깊고 풍부해졌고 모양도 기존 초코파이와 차별화했다. 앞서 센터는 코로나19로 2월부터 사업을 잠정 중단해왔다.

하지만 휴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 지자 근무를 희망하는 일부 참여자와 센터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맛의 삼색파이를 개발·선보이게 됐다.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오로지 연구에 몰입한 것.

직원들은 방역 지침 사항을 준수하며 전문가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삼색파이를 개발했다.

특히, 김진왕 완주지역자활센터장은 신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군청을 찾아 신제품 50박스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품질을 더욱 높였다.

김진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자활

사업도 휴관에 들어가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삼색파이를 개발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코파이와 삼색파이는 완주지역자활센터(063-231-1377) 또는 삼례문화예술촌 내 해와 달(sun&moon)카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완주지역자활센터의 해피트리브레드사업단은 2016년 10월 작은 임대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지난해 12월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재료가 공공장을 준공(330㎡), 생산품 HACCP인증을 마쳤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하면,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홍보 위해 유관기관 방문

김제시 청하면(면장 허정우)은 김제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으로 지난 27일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이날 청하 우체국, 농협, 청하초, 청하중학교등을 방문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김제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내 미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입장려금,이사비지원사업,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을 적극 홍보했다.

청하면은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범시민운동을 위해 사회단체와의 인구늘리기 캠페인 전개, 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김제주소갖기 운동 전개, 타시군에 주소를 둔 김제 실거주지 전입독려등을 전개하여 인구늘리기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허정우청하면장은 "내고장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협력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북도 총무과 김형준 주무관(29세)이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첫 월급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생애 첫 월급, 장학금으로 쾌척

전북도 총무과 김형준 주무관,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출신

"생애 첫 월급은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지난 27일 전북도 총무과 김형준 주무관(29세)이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첫 월급 142만4,510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출신인 김형준 주무관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19년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전북도 총무과에 임용되자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도움을 다시 지역사회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 주무관은 "첫 월급 기부의 꿈을 이루었고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하게 되었다"며, "오랜 시간 꿈꿔왔던 공무원의 꿈을 이룬 것은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덕분이었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첫 월급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이사장은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탁해 준 정성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수한 젊은이들이 기탁자와 같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은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량진 강사가 직접 방문 강의하는 직강 과정과 관리형 독서실, 전 과목 동영상 강의 등 3-track 시스템을 갖추어 지난해 3월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한 지 1년 만에 11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은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인 노량진에 위치한 (주)에 듀스과 박문각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드림팩' 전달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 정책에 따라 임시휴관 중이나 최근 학교 밖 청소년 20명에게 '꿈드림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꿈드림팩'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지쳐있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양말, 간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검정고시 시험을 앞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좌 수강을 독려하고 추가로 기출문제집을 전달하는 등 검정고시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드림팩을 전달함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면 상담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